

새누리 “5곳 우세” 새정치 “3곳 빼곤 열세”

재보선 D-6 중반 판세

7·30 재·보궐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여야는 전체적인 선거 판세에 대해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상당수 지역이 접전 양상이라며 ‘방심은 금물’이라는 낮은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호남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리드하는 지역이 없다며 크게 긴장하는 모습이다.

우선 새누리당은 새정치연합 권은희 후보(광주 광산구)에 대한 잇단 의혹 제기로 승기를 잡았지만 세월호 실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시신이 발견되는 등 돌발 변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새누리당은 현재 147개 의석에서 4석 이상을 추가해 원내 과반을 확보하면 최소한의 목표를 달성한 것이고, 모두 15개 선거

이정현 출마 순천·곡성 與 열세, 野 박빙 우세 분석

서울 동작을·수원 정

야권후보 단일화 변수로

구 중 절반 이상을 확보하면 선전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새누리당은 ‘덧밭’인 부산 해운대 기장갑과 울산 남을, 서울 동작을, 경기 수원을(권선), 충북 충주 등 5곳에서 우세를 점한 것으로 자체 분석하고 있다.

수원병(맹달), 수원정(영동), 김포, 평택을 등 나머지 수도권 선거구와 충남 서산·태안과 대전 대덕 등 6곳은 박빙의 차로 승패가 갈리는 경합 지역으로 분류했다.

새정치연합은 수도권에서 전패하고 호남 3곳에서만 승리하는데 그칠 수 있다는

위기가속에서 ‘수원벨트’를 중심으로 수도권에 화력을 집중시켜 당초 목표인 ‘5+α’를 달성하겠다는 각오다.

‘유병언 사체 발견’ 변수를 놓고는 ‘무능정부’ 프레임이 부각되고 ‘권은희 약재’ 확산을 차단시키는 긍정적 효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도 보이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호남 4곳 중 광주 광산을, 나주·화순, 담양·함평·영광·장성 등 3곳에서만 승리를 장담하는 상황이다.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한 순천·곡성은 박빙우세로 분석했다.

수원 을·병·정, 평택을, 김포, 대전 대덕은 박빙열세 내지 박빙우세라는 게 자체 분석 결과이고 동작을, 해운대 기장갑, 충주, 서산·태안은 열세 지역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여야의 이런 자체 판세분석에도 불구하고 변수는 남아있다. 무엇보다도 야권연대 성사여부가 막판 판세를 뒤흔들 핵심요인으로 꼽힌다.

특히 최대 관심지역인 동작을에서 정의당 노회찬 후보가 22일 ‘단일화 불발시 후보직 사퇴’를 전제로 야권연대 카드를 전격적으로 꺼내들면서 후보 단일화 불씨를 다시 지폈다.

새정치연합 기동민 후보와 정의당 노회찬 후보의 단일화는 사실상 성사된 만큼, 야권 단일후보와 새누리당 나경원 후보의 1대1 대결 구도는 접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새누리당 임태희 후보에 맞서 출마한 수원정의 새정치연합 박광온 후보와 정의당 전호선 후보의 단일화에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다만 야권연대가 성사될 경우 새누리당 지지층의 결집이라는 역풍도 예상된다.

투표율도 주목할 사안이다. 재보선은 투표율이 낮은 데다 여름 휴가철이 끼어있어서 투표 참여가 더 낮아질 수 있어 여야는 지지층을 투표로 연결시키기 위해 총력전을 펼칠 계획이다. /연동기자 tuim@

목법과 농담의 변화 돋보인 ‘목포도도’



(78) 청포도

“내 고장 칠월은/청포도가 익어 가는 시절/이 마을 전설이 주절이 주절이 열리고/면 대 하늘이 꿈꾸며 알알이 들 어와 박혀/하늘 밑 푸른 바다기 가슴을 열고/흰 돛 단 배가 곱게 밀려서 오 면...”(이유사 작 ‘청포도’ 중에서)

한 잔의 흥차에 적신 ‘마들렌’이 ‘나’를 어린 시절로 빨려 들어가게 했던 마르셀 프루스트의 소설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는 아무리 생각해도 빼어난 설정이다. 며칠 전 한 카페에서 청포도 주스를 마시면서 프루스트의 소설 속 주인공처럼 포도에 관한 상념에 젖어본다.

한때, 전원생활의 부분 꿈으로 청포도와 거봉 등 포도밭 농사를 도운 적이 있었다. 봄이면 포도순 숙는 일이 한 집, 주말마다 고된 노동이 따로 없었고 태풍에는 잠으로 마음 졸였었다.

요맘때쯤 ‘맘의 결정체’인 포도 한 알을 따먹었을 때의 그 달콤함은 지금도 ‘귀하다 귀한’ 황홀함으로 남아있다.

포도를 그렸던 가장 유명한 화가는 조선 중기 선비화가 황집중(1522~?)이다. 포도는 서역이 원산지라 우리나라에 유입된 후 자손 번성을 상징하는 문양으로 고려청자나 조선 초기 백자에 그려지다가, 조선 중기에는 먹으로



황집중 작 ‘목포도도’

그리는 포도그림의 소재로 사랑받았다. 탕글탱글한 포도 알, 넓적한 이파리, 꼬불꼬불한 넝쿨 등이 수묵화가가 표현하기에는 더없이 매력적인 소재였을 것이다.

황집중의 작품 ‘목포도도’는 위에서 아래로 빗겨져 내린 가지의 대각선 포치, 동그란 포도 알의 입체감이 탐스럽고 별레 먹은 잎과 넝쿨 말림새의 묵법과 농담의 변화가 돋보인다.

황집중의 목포도는 흔히 조선 초기의 신사임당과 비교된다. 신사임당은 산수화, 초충도, 채색 화조화를 비롯 목포도에도 뛰어난 재주를 보여 몇 점의 목포도도를 남겼지만, 황집중은 포도 한 가지만으로 일가를 이뤄 이정의 대나루, 어몽룡의 매화와 함께 ‘삼절(三絶)’로 일컬어진다. <광주비엔날레 전시부장·미술사 박사>

기동민 “후보간 담판으로” 노회찬 “공정한 여론조사로”

서울 동작을 후보 단일화

첫 회동...방식 이견 불발

노회찬 후보 사퇴로 갈 듯

7·30 재·보선 최대 격전지 중 하나인 서울 동작을(乙)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기동민, 정의당 노회찬 후보가 야권 후보 단일화를 위해 일단 손을 잡았지만, 양측의 입장차이로 첫날에는 합의에 실패했다.

기 후보는 23일 서초구 현대 HCN에서 열리는 후보 간 TV토론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어 “직접 만나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겠다”며 노 후보의 전일 후보 단일화 제안을 수용했다.

이에 두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서당동의 한 커피숍에서 1시간 가량 비공개 회동을 하고 협상을 벌였으나 단일화 방식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노 후보는 회동 직후 브리핑에서 “(단일화) 방식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얘기를 더 같이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회동에서 기 후보는 후보 간 담판을 통한 후보 단일화를, 노 후보는 여론조사를 통한 후보단일화를 각각 주장하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노 후보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식을 통해서 (단일 후보를) 정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지 않나. 그게 일반적으로 여론조사니까 제안을 했다”며 “그런데 그 방식에 동



7·30재보궐선거 동작을 국회의원에 출마한 새정치민주연합 기동민 후보(오른쪽)와 정의당 노회찬 후보가 23일 서울 동작구 서당동 한 카페에서 후보단일화 논의를 위해 만나고 있다. /연동뉴스

의하지 않는다면 다른 방식을 제안해달라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또 “담판은 어느 한 사람에게 양보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라 객관적이고 공정하지 못하다”며 “갑작스러운 여론조사가 문제라면 이미 했던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얘기해보고 당의 지침도 빨리 받아달라고 요청했다”고 소개했다.

이에 대해 기 후보는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는 시간상 가능하지 않다”면서 “결국

들의 결단과 선택만 남은 것”이라고 말했다.

두 후보는 새누리당 나경원 후보의 당선을 막기 위해서는 야권 후보 단일화를 이뤄야 한다는 뜻을 같이하고 양측이 수용할 수 있는 단일화 방안에 대해 계속 협의하기로 했으나 다음 회동의 시기를 정하지는 못한 채 헤어졌다.

이에 따라 두 후보 간 협상은 단일화 방식을 둘러싼 신경전만 벌어지다가 노 후보가

마지노선으로 정한 24일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경우 야권 후보는 새정치연합 기동민 후보로 사실상 결론나게 된다. 노 후보가 전일 단일화 협상을 제안하면서 “24일까지 단일화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후보직을 사퇴하고 기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기 때문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인구 많은 적든 신경써야 할 내 지역구”

이개호 후보, 주민 320명 영광 낙월도 찾아 환대 받아

담양·함평·영광·장성 보궐선거에 출마한 새정치민주연합 이개호 후보가 23일 영광 낙월도를 찾았다.

행정구역상 영광군 낙월면인 이 섬에는 320여명이 살고 있다. 더욱이 염산면에서 배로 1시간10분여를 가야 하는 곳여서 선거에 나온 후보라도 막상 가려고 하면 망설여진다고 한다. 후보가 유권자가 있는 곳을 찾아가는 것이야 당연한 것이지만 짧은 재보선 일정상, 선거운동의 효율을 생각하면 쉽지 않은 선택인 것이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변영회장인 김태욱 씨의 안내를 받아 한전 내연발전소, 목표해 양정철서 낙월출장소, 보건진료소, 낙월파출소, 낙월우체국, 낙월교회 등을 들렀다. 그곳에서 근무하는 주민들로부터 “의원님 되면 낙월도 좀 신경 써 주십시오”라는 부탁을 받고 이 후보는 “세세한 것까지 찾아서 심부름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변영회장은 “국회의원 후보가 이 섬을 찾은 것은 이

번이 처음일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렇게 마을의 주요 기관을 찾아다니다가 주민이 보이면 달려가서 “이개호입니다” “인사하러 왔습니다” “기호 2번입니다”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일부 주민들은 “이렇게 멀리까지 왔나”고 반색했고, 또 일부 주민은 “우리아무조건 2번이제”라고 안심을 시키기도 했다. 이에 이 후보는 “그래도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라며 주민의 손을 꼭 잡았다.

이 후보는 “애초는 공천을 받아마자 오려고 했었는데 태풍이 와서 못 왔다”며 “이후 일정에 밀려서 낙월도행 일정을 잡지 못했으나 ‘이러다가 못 가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모든 것 핑계치고 낙월도를 찾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효율적이 못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인구가 많은 적든 내 지역구고 내가 신경을 써야 할 곳”이라며 “주민들이 진정성을 알아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박지경기자jkpark@

Korea Be Inspired

항구, 축제를 열다!

목포해양문화축제

MOKPO MARITIME CULTURAL FESTIVAL

2014. 8. 1(금) ~ 8. 5(화) 5일간

삼학도 및 선창 일원

2014 대한민국 유망축제

주최 : 목포시 주관 : 목포시축제추진위원회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전라남도 한국관광공사